

화 답 송 (후렴)

26. 7. 5.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



후렴. 주님,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.

26. 7. 12.연중 제15주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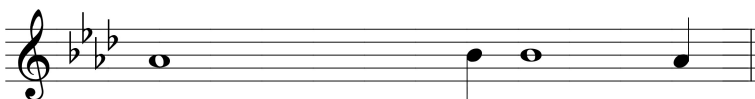
후렴.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

26. 7. 19.연중 제16주일



후렴. 주님, 당신은 어질고,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

26. 7. 26.연중 제17주일



후렴. 주님,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